

읽기곤란 학생 성장 지원

도교육청·전북대병원 공동, 전문가 방문 중재교육 담임교사 연수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전북대병원과 공동으로 읽기곤란(난독) 학생들을 위한 전문가 방문 중재교육과 담임교사 연수를 통해 난독학생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24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오는 28일 2층 강당에서 읽기곤란(난독) 학생 담임교사 112명을 대상으로 '자신만의 속도로 천천히 성장하는 아이들'이라는 주제로 읽기곤란 학생 중재교육 담임교사 연수를 실시한다.

이 연수는 읽기곤란으로 판정된 학

재 전문가 방문 중재교육을 받고 있는 도내 초·중 88개교 132명의 담임교사를 대상으로 중재교육 전문가, 담임교사, 학부모가 함께하는 다중지원을 통해 난독학생을 효과적으로 돕기 위해 기획됐다.

유은미 언어치료사(전북대병원 임상연구지원센터)는 음소인식 능력 부족 등 다양한 이유로 읽고 쓰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읽기곤란 학생의 진단 방법, 찾아가는 음성언어치료 중재 서비스, 학교와 가정에서의 연계 교육

방법 등에 대해 강의한다.

또 방문중재교육과 병행해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읽기 자신감 한글 자서글자, 박복을 활용한 담임교사의 연계지도 방법 연수가 실습형으로 이뤄진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읽기곤란(난독) 학생을 위한 방문 진단 및 전문치료 중재서비스, 담임교사의 연계지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난독학생들의 언어활용 능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호원대학교 창업보육센터(센터장 정의봉)는 지난 24일 신학협력단 2층 세미나실에서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및 JENBI(전북네트워킹)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창업교육을 실시했다.

호원대, 기업 랜선 라이브 창업교육

창업 초기 시장환경 분석 등

호원대학교 창업보육센터(센터장 정의봉)는 지난 24일 신학협력단 2층 세미나실에서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및 JENBI(전북네트워킹)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창업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창업교육은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창업 초기 판로구축을 위한 시장 환경 분석 및 공공기관 중심의 마케팅 전략과 조달청 나라장터 등록 절차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

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기 위해 오프라인 교육에는 20명의 최소인원이 참석해 동시 라이브 방송을 진행 80개 기업이 교육에 참여 온 오프라인 이원방송 교육으로 펼쳐졌다.

JENBI는 호원대를 중심으로 전북대, 우석대, 한국탄소융합기술원, 전북생물산업진흥원, 희망전북포스트 창업보육센터 등 6개 기관이 연합해 입주기업을 공동으로 육성하는 협의체로, 각 기관이 보유한 자원을 공유하고 기업

육성을 위한 공동사업을 4년째 추진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오프라인 사업 추진에 제약이 있어 기업 창업교육을 위한 온라인 교육 공유 플랫폼(JENBI Startup lan-edu)을 개설해 각 센터가 생산한 교육콘텐츠를 입주기업이 공유할 수 있도록 랜선 교육체제를 구축했다.

정의봉 센터장은 "코로나19 사태가 하루빨리 종식돼 창업기업의 경제활동에 청신호가 켜지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창업보육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무주 빨강치마리조트

홈페이지: <http://www.milmo.co.kr> 전화: 063-322-7000



초기 청자류(왼쪽)와 출토 철기류.

한국 고대사 품은 '장수 침령산성'

전주박물관-장수군-후백제학회 등 도록 공동발간

국립전주박물관(관장 천진기)과 장수군청(군수 장영수) 그리고 후백제학회와 군산대학교 가야문화연구소는 공동으로 '장수 침령산성, 한국 고대사를 간직하다' 도록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 도록은 침령산성 사적 지정에 관한 '장수 침령산성 성격과 가치'라는 학술대회 개최를 기념하면서 제작된 것이다.

침령산성은 장수지역에 분포하고 있는 대표적인 고대 산성유적이다. 이 산성은 학자들이 의해 견학의 후백제 정권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15년부터 발굴조사가 이뤄졌고

지름 15m에 이르는 호남지방 최대 규모의 대형집수정이 발견돼 주목을 받았다.

특히 대형집수정 안에서는 유적의 위상을 말해주는 초기 청자, 글씨가 새겨진 열쇠와 목간 그리고 양호한 상태로 드러난 목재들이 출토됐다. 이 유물들은 침령산성의 역사적 가치를 더해줄 뿐만 아니라 당시 사람들의 생활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 더욱 의미가 있다.

천진기 관장은 "장수 침령산성은 전북지역의 주요 고대 산성으로서 삼국시대의 정치·문화상을 밝히는 데 빠질 수 없는 유적이다"며 그 중

요성을 강조했다.

학술대회와 도록 발간을 주도한 장영수 장수군수는 "향후 침령산성을 장수군과 전라북도의 특별한 자랑거리로 만들면서 국가 사적 지정을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공동발간 도록은 침령산성의 역사를 비롯해 전북지역의 고대 문화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록은 오는 27~28일 한국농업연수원 학술대회 현장에서 배포할 예정이다.

/정은성 기자

*묵간: 종이가 발견되기 이전에 문자를 기록하기 위해 사용하던 나무조각

전주비빔밥 맛과 멋 제대로 알린다

국제한식조리학교, 9월까지 찾아가는 품질 향상 컨설팅

(재)국제한식문화재단 국제한식조리학교(학교장 민계홍)는 오는 9월 30일까지 전주시와 함께 찾아가는 전주비빔밥 품질향상 컨설팅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찾아가는 전주비빔밥 품질향상 컨설팅은 전주비빔밥을 판매하고 있는 전국의 음식점 및 업소 중 전주시 관내 10개, 전국지역 10개 음식점 및 업소를 선정, 직접 방문해 전주비빔밥의 내형성, 외형성 요인을 중심으로 조리법, 음식디자인, 음식의 조화(외관, 색, 찬류)를 전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컨설팅 수혜 음식점 및 업소의 과정 특징으로는 전주시 전주비빔밥 인증현관과 해당업소(전주비빔밥) 홍보영상 제작이 포함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음식점 및 업소는 30일까지 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ask2012@hanmail.net) 또는 팩스(063-230-1668)로 접수하면 된다.

한편 국제한식조리학교는 이번 전주비빔밥 품질향상 컨설팅을 통해 전주비빔밥의 맛을 제대로 알려 음식창의도시인 전주의 이미지 제고와 해당 업

을 변경, 공고했다.

2020년도 제1회 전라북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변경 공고는 올해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을 늦추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국가기술자격시험이 연기됨에 따라 임용시험의 기간 및 필수자격증과 관련해 수험생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국가기술자격증 인정 기준일과 관련한 법령과 지침이 개정된 데 따른 조치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지난 13일 치러진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이 기존 7월10일에서 8월14일로, 인적성검사일이 기존 7월18일에서 8월22일로, 면접시험일이 기존 7월29일에서 8월 31일로 각각 늦춰졌다.

최종합격자 발표일은 기존 8월7일에서 9월4일로 변경됐다. 또한, 특성화고와 산업수요 맞춤형고등학교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력경쟁임용시험의 응시자격도 바뀐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도교육청 홈페이지(알림마당) 시험/채용정보 > 지방공무원시험에 게재된 공고문을 참조하면 된다. /정은성 기자

소의 수익증대를 기대하고 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국제한식조리학교 홈페이지(<https://www.cikchef.com>)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정은성 기자

2020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전북교육청, 일정 변경 공고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2020년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maeil.com